

복합 비애(Complicated Grief)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2010~2020): 체계적 문헌 고찰*

차 성 이 박 신 영 현 명 호†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2010년부터 10년간 국내에서 한국인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복합 비애(Complicated Grief)에 대한 연구문헌을 분석하여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 성과와 한계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10년간 복합 비애에 대해 연구한 188편의 논문을 검색하고 체계적 문헌 고찰 방법을 통해 최종 33편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구 대상 문헌 중 2015년도 이후에 진행된 연구가 28편으로 대다수였으며 대부분 양적 연구로 분류되었다. 또한, 사별 후 경과 기간을 고려한 연구는 19편, 사별 대상을 파악한 연구는 28편, 사별 유형을 파악한 연구는 22편이었다. 측정 도구는 복합 비애 척도(ICG)와 지속성 비애 장애 척도(PG-13)가 주로 사용되었으나 타당화된 척도를 사용한 연구는 부족했다. 또한, 복합 비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애착 유형, 침습적 반추,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있었으며, 복합 비애의 대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미래 중심적 대처와 대처 유연성, 의미 재구성이 있었다. 추가적으로 외상성 상실과 복합 비애에 대한 연구 결과와 복합 비애의 회복에 대한 심리 개입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탐색한 연구를 요약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대상 문헌의 한계점과 향후 복합 비애에 대한 보다 폭넓은 연구 필요성에 대해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복합 비애에 대해 진행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연구동향을 파악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복합 비애, 연구동향, 체계적 문헌 고찰

* 이 논문은 2019년도 중앙대학교 CAU GRS 지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 교신저자: 현명호,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06974) 서울시 동작구 흑석로 84,

Tel: 02-820-5125, E-mail: hyunmh@cau.ac.kr



Copyright © 2022,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Licenses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사별(bereavement)은 일반적으로 중요한 사람을 잃은 객관적인 상황을 의미하며, 비애(grief)는 죽음에 대해 보이는 감정과 행동 및 인지반응의 총체를 의미한다(Han et al., 2016, Stroebe, et al., 2001).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하는 경험은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주요 스트레스 사건 중 하나로, 상실감, 비탄, 슬픔, 우울감 등 고인의 부재로 인한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반응으로, 사별 후 경험하게 되는 정서적 고통감과 비애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완화되기도 한다. 하지만 사별을 경험한 사람 중 일부는 강도 높은 비애 감정과 애도 반응을 경험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이러한 심리적 고통감이 유지된다.

사별을 경험한 사람 중 약 10%는 임상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비애 증상을 경험하고, 재난이나 폭력적인 죽음을 경험한 경우 복합 비애를 경험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Holland & Neimeyer, 2011, Shear et al., 2011). 지속성 복합 사별장애(Prolonged Grief Disorder, PGD)의 유병률에 대한 최근 메타 분석 연구에서도 사별을 경험한 성인 중 약 9.8%가 PGD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undorff et al., 2017). 이러한 연구 결과는 사별을 경험한 사람에게 병리적인 비애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진단과 치료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많은 연구자가 정상 비애와 임상적 초점이 되는 비애를 구분하고자 시도하였다. 그 결과 이를 정의하는 다양한 용어가 존재하는데 최근에는 복합 비애(Complicated Grief, CG)와 PGD라는 개념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복합 비애는 일반적으로 사별 이후 최소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슬픔이나 고통과 같은 애

도 반응을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경험하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이 유지되는 경우로 정의된다(Prigerson et al., 1995). 국내 최초로 복합 비애 개념을 소개한 Chang (2009)은 복합 비애를 사별 후 경험할 수 있는 정상적이고 문화적으로 수용 가능한 애도 과정을 벗어나는 심리적·신체적 부적응을 지속적으로 초래하는 비애 반응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자살, 재난 등 외상적 사별 경험 이후 상실에 대한 반응과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을 강조하고자 비정상적 비애를 외상성 비애(Traumatic Grief)라는 개념으로 분류하기도 한다(Prigerson et al., 1999).

비정상적 비애 반응의 개념적 정의에 대한 합의를 위해 2009년 사별 정신건강 전문가가 PGD의 심리측정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사별로 인한 지속적인 고통감과 기능 손상을 경험할 위험성이 높은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진단 기준을 논의하였다(Prigerson et al., 2009).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5판(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 5th Edition, DSM-5, APA, 2013)에 추가 연구가 필요한 진단으로 PGD가 포함되었다. PGD는 친밀한 사람과 사별한 후 12개월 이상 다양한 비애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장애로, 죽은 사람에 대한 지속적인 갈망과 그리움, 강렬한 슬픔과 잦은 울음, 고인과 죽음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집착을 핵심 증상으로 한다. 이외에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현저한 어려움, 죽음을 믿지 않음, 죽은 사람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 죽은 사람이나 죽음과 관련한 자신에 대한 부적응적 평가, 죽음을 상기시키는 요소의 과도한 회피, 죽은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 죽고자 하는 소망, 불

신감과 고립감, 정체성이 감소된 느낌 등을 경험할 수 있다.

복합 비애는 슬픔, 울음, 불면, 자살 사고 등을 경험한다는 점에서 우울장애와 유사하며, 친밀한 사람과 사별했다는 외상적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PTSD와 유사하다. 하지만 복합 비애는 고인에 대한 강렬한 그리움을 경험하며 공허감과 상실감이 우세하다는 점에서 우울 장애와 구별될 수 있다(Han et al., 2016). 또한, PTSD가 공포와 두려움을 주 증상으로 하며 사건에 대한 기억을 촉발하는 자극과 상황에 대한 회피 증상을 보이는 반면, 복합 비애는 고인에 대한 몰두와 관련된 침습적인 심상을 경험하고 사별에 대한 고통스러운 사고와 감정을 회피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Shear et al., 2011).

복합 비애와 PGD는 대체로 유사한 개념으로 연구되었으나 최근에는 복합 비애가 PGD 뿐만 아니라 사별 이후 경험할 수 있는 우울, 불안, PTSD 증상을 모두 포괄한다는 주장도 있다(Rando, 2013). PGD를 경험하는 사람의 70%가 1개 이상의 복합 비애 반응을 보이고, 46%는 2개 이상의 복합 비애 반응을 보인다는 최근의 메타 분석 연구 역시 복합 비애와 PGD가 개념적 및 심리측정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지지하고 있다(Komischke-Konnerup et al., 2021). 이에 본 연구에서는 PGD와 복합 비애를 개념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보고, 사별 이후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비정상적인 비애 반응을 '복합 비애'라고 명명하였다.

복합 비애의 기제를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Stroebe와 Schut(1999)의 사별 대처에 대한 이중 과정 모델(Dual process model of coping with bereavement)이다. 이 모델에서는 사별 대처 과정을 상실중심 대처와 회

복중심 대처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상실중심 대처는 사별의 일차적 스트레스인 애착 대상 상실에 대한 대처로, 슬픔에 대한 몰입, 고인에 대한 기억과 관련한 침습 증상, 회복을 위한 변화의 거부와 회피를 포함한다. 회복중심 대처는 사별에 따른 사회적 반응, 일상에서의 적응 등 사별의 이차적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과정으로, 삶의 변화에 참여하고 새로운 정체성과 역할을 획득하며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사별을 경험한 사람은 이 두 가지 대처 과정을 거쳐 적응하는데,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 복합 비애 반응을 보인다.

한편, 사별을 경험하면 애착 대상이 사망했다는 현실과 애착 대상에 관한 내적 표상 사이에서 불일치가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사별을 경험한 개인은 감정 조절의 어려움을 느끼며 급성 애도를 경험할 수 있다(Shear & Shair, 2005). 사별을 경험한 사람이 상실을 장기 기억으로 통합하며 애착 대상의 내적 표상이 변하면서 급성 애도 증상은 줄어든다. 그러나 통합에 실패하여 부적응적인 인지가 유발되면 복합 비애를 경험하게 된다(Han et al., 2016).

Boelen 등(2006)의 복합 비애의 인지행동적 개념화 모델(Cognitive-Behavioral Conceptualization of Complicated Grief)에서는 복합 비애의 발달과 유지 과정에 다음 세 가지 인지 과정이 관여한다고 설명한다. (1) 상실 경험을 자서전적 지식 기반에 불충분하게 통합시키는 것, (2) 비애 반응에 대한 오해석과 부정적 신념, (3) 불안 및 우울 회피 대처 전략이 그것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세 가지 인지 과정의 상호작용과 더불어 지적 능력과 같은 개인의 취약성, 죽음의 유형과 같은 사별 경험의 특성, 이차

적 상실과 같은 사별 경험의 결과가 서로 영향을 미쳐 복합 비애를 유발하게 된다(Hwang, 2011).

국외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복합 비애와 PGD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복합 비애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대한 탐색과 치료적 접근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낮은 교육수준, 여성, 고령, 우울증, 불안감, 신체적 건강 부족, 부적응적인 애착 특성, 지각된 사회적 지지 부족, 가족 갈등,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복합 비애의 위험요인으로 요약되었다(Burke et al., 2010, Mason et al., 2020). 또한, 복합 비애를 위한 치료적 개입으로 인지 과정에 초점을 맞춘 복잡성 애도 치료(Complicated Grief Therapy; CGT, Shear, 2015), 외상성 비애를 위한 인지행동 치료(Cognitive-behavior Therapy for Complicated grief, Boelen, 2006), 외상성 비애를 위한 단기 절충적 심리치료(Brief Eclectic Psychotherapy for Traumatic Grief, BEP-TG, Smid et al., 2015)가 개발되었다.

국내에서는 약 2010년도 이후에 복합 비애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세월호 사건 이후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정신의학, 심리학 이외 노년학, 목회학, 간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애착, 인지 과정 등 복합 비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자살 사고, 음주 문제, 우울, 불안, PTSD 등 정신의학적 어려움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내에서 복합 비애와 관련하여 발표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고, 사별 후 경과 기간이나 사별 대상을 고려하지 않은 연구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각 연구에서 복합 비애를 지칭하는 용어 역시 연구 목적 및 연구자

의 의도에 따라 ‘복합 비애’, ‘지속 비애’, ‘복잡성 비애’, ‘외상성 애도’ 등이 혼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복합 비애와 관련된 국내 연구를 개관하고, 현 시점에서의 관련 연구 결과에 대한 요약과 더불어 연구의 성과 및 한계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을 통해 문헌의 선정과 질적 평가 및 분석 과정을 진행하였다. 체계적 문헌고찰은 사전에 정한 선정 기준에 적합한 모든 근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연구 질문에 응답하는 연구 방법이다. 이를 위해 문헌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검색하고 선정된 문헌에 대한 비뮴림 평가 등 객관적이며 엄격한 과정을 적용한다(Kim et al.,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복합 비애에 대한 연구 결과를 연구 대상, 연구 방법, 주요 변인 등에 초점을 맞추어 요약하고, 복합 비애의 메커니즘과 관련한 인지 및 정서적 요인과 복합 비애의 대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리고 복합 비애의 치료적 접근을 살펴보는 데에 있다. 이를 통해 향후 복합 비애 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점과 연구의 방향을 제안하고, 복합 비애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체계적으로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인을 대상으로 복합 비애를 다룬 연구의 전반적인 파악과 개관을 위해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을 사용하였다. 체계적 문헌고찰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두 명의 연구자로 연구진을

구성해야 한다(Kim et al.,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 명의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하였다.

문헌 검색

문헌 검색을 위해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외에서 발표된 학술지 및 학위 논문 중 복합 비애를 주제로 연구한 논문을 검색하였다. 국내에 출판된 논문의 검색 엔진은 한국연구재단한국학술지인용색인(www.kci.go.kr), 한국학술정보(kiss.kstudy.com), 한국교육학술정보원(www.riss4u.net), 누리미디어(www.dbpia.com),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Scienceon.kisti.re.kr)가 이용되었다. 국외에서 출판된 논문은 Pubmed, SCOPUS, Science Direct를

이용하여 검색하였다.

국내 문헌의 검색 키워드로 ‘복합 비애’와 함께,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복합 비애와 유사한 개념으로 연구되고 있는 ‘복잡성 비애’, ‘지속 비애’, ‘복합 애도’를 선정하였다. 예비 문헌 선정 과정에서 복합 비애만을 선별하기 위해 트라우마성 상실, 외상 상실, 사별 등 유사어는 키워드에서 제외하였다. 국외 문헌은 ‘Korea’, ‘Korean’, ‘complicated grief’, ‘prolonged grief’의 4개 키워드를 선정하여 논문 제목과 초록을 검색하였고 ‘grief’와 동시에 ‘Korea’나 ‘Korean’이 포함된 경우도 포함하였다.

연구자 간 편향을 배제하기 위해 세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문헌을 검색하고 교차 검증하였다. 문헌 검색 결과, 국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색한 문헌은 총 144편(RISS 65편, KC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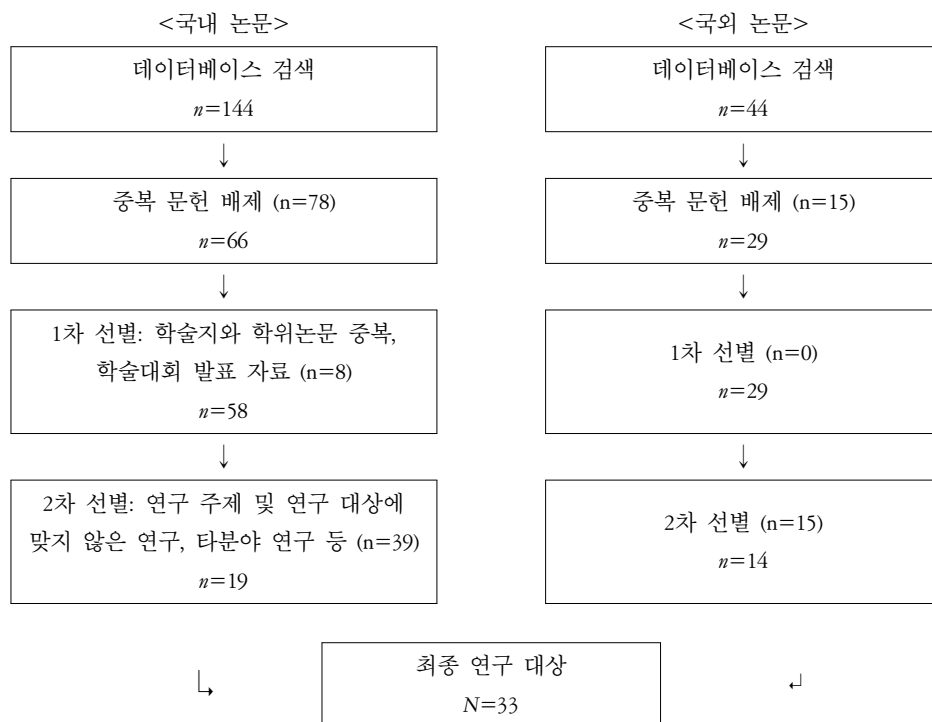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선정 흐름도

31편, DBPIA 22편, KISS 7편, Scienceon 19편)이었는데, 중복 문헌 78편을 제외하면 총 66편이었다. 국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검색한 문헌은 총 44편(Pubmed 25편, SCOPUS 16편, Science Direct 3편)이었으며, 중복된 15편을 제외한 수는 총 29편이었다.

문헌 선정 기준

문헌의 선별과 배제 기준을 정하기 위해 각 연구자가 수집한 자료의 연구 특성과 연구 대상, 내용, 출판년도와 저자 등의 기초 자료를 포함한 항목을 근거표로 정리하여 수집된 자료를 재검토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복합 비애의 보호 및 위험요인을 탐색하고자 하는 본 연구 주제를 고려하여 ‘한국인’, ‘성인’, ‘친밀한 관계에 대한 사별 경험’을 선별 기준으로 하여 연구를 선정하였다. 또한 연구 주제 및 대상에서 벗어난 경우, 학술 발표 자료 혹은 전문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학술지와 학위 논문이 중복된 경우를 1차 배제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복합 비애를 다루지 않은 경우, 복합 비애를 측정하지 않은 경우, DSM-5의 지속성 복합 비애 장애의 진단기준을 참고하여 연구 대상이 ‘친밀한 관계’에서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 예술 등 타 분야에서 진행한 연구를 2차 배제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중복 문헌을 제외한 국내 연구 66편과 국외 연구 29편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 단계를 통해 문헌 선정 기준을 검토하였다. 첫 단계에서는 논문의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논문의 전문을 확인하고 문헌의 선택과 배제 기준을 검토하였

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최종 선택된 논문과 배제된 논문을 재검토하며 확인하였다.

그 결과, 국내 발간문헌의 경우 학술지와 중복되는 학위 논문 8편을 1차로 배제하였다. 2차로 펫 로스에 대한 연구 7편, 외국인, 아동 등 연구 대상군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 4편, 복합외상 및 외상 후 성장을 주로 다룬 연구 4편, 목회 및 예술 등 타 분야 연구 4편, 복합 비애가 아닌 애도와 사별 경험만을 다룬 연구 16편, 복합 비애 전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 1편, 이론 연구 1편, 학술대회 발표 자료 2편 총 39편을 배제하고 19편의 논문을 분석 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국외 발간 연구의 경우 복합 비애가 아닌 비탄감이나 사별 경험만을 다룬 연구 9편, 복합 비애 전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연구 1편, 생존자의 비애에 대한 연구 3편, 청소년 대상 연구 2편을 제외하고 총 14편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이에 국내 및 국외 논문 총 33편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결정하였다.

문헌의 질적 평가 및 분석

체계적인 오류로 연구 결과나 추정이 참값을 벗어나는 것을 ‘비뿔림’이라고 하며, 이는 연구의 중재 효과를 과다 혹은 과소 추정하게 한다.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는 이러한 비뿔림이 발생할 위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비판적 평가 도구를 적용하여 문헌을 점검하고 평가할 것을 추천한다(Kim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문헌의 비뿔림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Mixed Methods Appraisal Tool (MMAT)를 활용한다. MMAT는 질적 연구(Qualitative studies), 양적 무선 통제 연구(Quantitative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양적

비무선 연구(Quantitative non-randomized studies), 양적 기술 연구(Quantitative descriptive studies), 혼합 연구(Mixed methods studies)와 같이 연구 방법에 따라 연구를 분류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상황별 요인의 영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MMAT는 문헌의 질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Heyvaert et al., 2013).

MMAT를 통한 문헌 평가 과정은 다음과 같다. 연구자는 모집된 문헌을 연구 방법에 따라 질적 연구, 양적 무선 통제 연구, 양적 비무선 통제 연구, 양적 기술 연구, 혼합 연구로 분류한 뒤, 연구 방법론적 질을 다섯 가지의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양적 기술 연구의 경우 (1) 표본 추출 전략이 연구 질문을 해결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가, (2) 표본이 대상 모집단을 대표하는가, (3) 측정값이 적절한가, (4) 무응답 편향이 낮은가, (5) 연구 질문에 대한 통계 분석은 적절한가에 대한 질문이 연구의 방법론적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한다(Hong et al., 2018).

질적 연구의 경우, (1) 질적 접근이 연구 질문에 대답하기에 적합한가, (2) 질적인 자료 수집 방법이 연구 질문을 해결하는데 적절한가, (3) 조사 결과가 데이터 자료로부터 적절하게 도출되었는가, (4) 결과에 대한 해석이 데이터로 충분히 입증되었는가, (5) 질적 자료의 출처, 수집, 분석 및 해석 간에 일관성이 있는가(Hong et al., 2018)에 대한 질문이 방법론적 질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유사한 방식으로, 양적 무선 통제 연구, 양적 비무선 통제 연구, 혼합 연구에 대해서도 해당 연구 방법론적 질을 평가하기 위한 다섯 가지 질문에 답하게 된다.

평가 과정에서 최소 2명의 연구자가 독립적

으로 각 질문에 대해 ‘그렇다(Yes)’, ‘아니다(No)’, 혹은 질문에 대한 적절한 정보나 해답을 논문이 보고하지 않는 경우 ‘식별 불가(Can't tell)’로 판단하며, 이후 동의과정을 거쳐 선정된 문헌의 비뚤림 위험을 판단하고 문헌의 질을 검토한다.

본 연구에서 최종 선정된 33개의 문헌을 세 연구자가 MMAT로 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 연구 방법의 질은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연구 방법을 근거로 분류했을 때 질적 연구가 1개, 양적 무선 통제 연구가 4개, 양적 비무선 통제 연구가 2개, 양적 기술 연구가 26개였다. 전체 연구 중 17개 연구는 연구 방법의 질이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6개 연구 중 연구 대상 표본의 대표성 확보가 부족한 연구가 2개, 측정값의 적절성이 확보되지 않은 연구가 1개, 무응답률이 높거나 무응답 이유에 대한 기술이나 통계적 처리가 미비한 연구가 5개였다. 이와 관련한 MMAT 질적 평가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으며, 선정된 문헌의 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각 범주 내에서 점수를 단순 합산하여 제시하기보다는 각 기준의 점수에 대한 정보를 함께 기술하였다.

선택된 논문에 대한 자료 추출 기준을 탐색하기 위해 예비 분석(pilot test)을 통해 연도별로 논문을 추린 후 자료 추출 형식을 구성하고, 최종적으로 연구 정보,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주요 변인, 연구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자료를 추출하였다. 자료 분석 과정에서 각 연구의 연구 정보, 연구 방법, 주요 결과를 기술적으로 분석하였고 이를 연구 특성표(표 2)와 주요 주제 및 연구 결과 요약(표 3)에 제시하였다.

표 1. MIMAT 질적 평가 결과(N=33)

주제자, 출판연도	질적 연구																										
	1.1	1.2	1.3	1.4	1.5	2.1	2.2	2.3	2.4	2.5	3.1	3.2	3.3	3.4	3.5	4.1	4.2	4.3	4.4	4.5	5.1	5.2	5.3	5.4	5.5		
Hwang, 2011																											
Cho, 2012																											
Jung et al., 2014	Y	Y	Y	Y	Y																						
Nam, 2015a											N	Y	Y	Y	Y												
Nam, 2015b																Y	Y	N	Y	Y	Y						
Nam, 2016a																Y	N	Y	?	Y							
Nam, 2016b						Y	Y	Y	?	Y																	
Byeon et al., 2016																Y	N	Y	Y	Y	Y						
Han et al., 2017																Y	Y	Y	Y	Y	Y						
Huh et al., 2017																Y	Y	Y	Y	Y	Y						
Nam, 2017						Y	Y	N	?	Y																	
Jang et al., 2017											Y	Y	Y	Y	Y												
Kang, Lee, 2017																Y	Y	Y	Y	Y	Y						
Jung, 2017																Y	N	Y	Y	Y	Y						
Huh et al., 2017																Y	Y	Y	Y	Y	Y						
Nam, 2018						Y	Y	Y	?	Y																	
Yun et al., 2018																Y	Y	Y	Y	N	Y						
Kim & Kwon, 2018																Y	Y	Y	Y	Y	Y						
Shin & Lee, 2018																Y	Y	Y	Y	Y	Y						
Lee et al., 2018																Y	Y	Y	Y	Y	Y						
Lee, J. H. et al., 2018																N	N	Y	Y	Y	Y						
Han et al., 2019																Y	Y	Y	Y	N	Y						
Kim & Lyu, 2019																Y	N	Y	Y	Y	Y						
Kim & You, 2019																Y	N	Y	Y	Y	Y						
Kim et al., 2019																Y	Y	Y	?	Y							
Shin et al., 2019																Y	Y	Y	?	Y							
Choi & Cho, 2020																Y	Y	Y	Y	Y	Y						
Huh et al., 2020																Y	Y	Y	Y	Y	Y						
Kim & Song, 2020																Y	Y	Y	Y	Y	Y						
Nam et al., 2020						Y	Y	Y	?	Y																	
Lee, 2020																Y	Y	Y	Y	Y	Y						
Lim et al., 2020																Y	Y	Y	Y	Y	Y						
Kim, 2021																Y	Y	Y	Y	Y	Y						

주: 빈칸, 해당사항 없음; Y, 그렇다; 물음표(?), 식별불가; N, 아니다.

결 과

연구 대상자 특성

연구 유형

국내 문헌의 경우, ‘복합 비애’로 명명한 연구가 4편, ‘복합 애도’, ‘복잡성 애도’, ‘복잡성 비애’, ‘복잡성 사별 비애’, ‘복잡성 애도’라고 명명한 연구가 6편, ‘비에 수준’이라고 명명한 연구가 1편, ‘지속 비애’라고 명명한 연구가 8편이었다. 국외에서 발간한 논문은 모두 ‘복합 비애(complicated grief)’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문헌의 출간년도 및 시기를 살펴보면, 2015년 이전에 출판된 논문은 5편(2011년 1편, 2012년 1편, 2014년 1편, 2015년 2편)으로 전체의 15%였다. 2015년도 이후에 출간된 논문은 전체의 85%를 차지하였다. 2016년도에 출간된 논문은 3편, 2017년도는 7편, 2018년도는 6편, 2019년도에는 5편, 2020년도에는 6편, 그리고 2021년도(2월 기준)가 1편이었다. 이처럼 2015년도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복합 비애에 대한 연구자의 관심이 최근 5년 사이에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선정된 문헌의 학술지와 소속을 근거로 살펴보면, 심리학 40%(13편), 정신의학 24% (8편)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노년학 5편(15%), 사회복지학 4편(12%), 간호학, 교육학, 목회 상담학 각 1편순이었다. 연구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양적 연구는 총 32편으로 전체 97%를 차지했고, 질적 연구는 1편이었다. 양적 연구 중 양적 무선 통제 연구는 4편, 양적 비무선 통제 연구는 2편, 양적 기술 연구는 26편이었다. 또한, 조사 연구는 25편, 프로그램 효과 연구가 4편, 타당화 연구가 2편순이었다.

연구 대상자의 수를 살펴보면 최소 18명에서 최대 1998명으로, 각 연구마다 대상자 수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연구는 연구 대상자를 성별과 무관하게 모집하였는데, 1편은 여성을 대상으로, 1편은 남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전체 연구 중 8편은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평균 연령을 포함한 연구 대상자의 다양한 특성은 표 2에 제시하였다.

사별 기한을 고려하여 연구 대상자를 모집한 연구는 15편이었다. 이 중 11편은 사별을 경험한 지 6개월 이상이 경과한 사람을 연구 대상으로 제한하여 모집하였다(표 2 참고). 이외 11편은 사별 기한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거나 제한을 두지 않았고, 6편은 세월호 사건 후 특정 시점에 진행된 연구였다.

사별 후 경과 기간은 33편 중 58%(19편)에서는 사별 후 경과 기간을 제시하였고 나머지 42%(14편)은 기간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었다. 사별 후 경과 기간을 고려한 연구 중 6편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사별 후 특정 시점에서 진행된 연구였다. 사별 기간을 제시한 19편의 연구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연구 대상자는 사별 후 최소 평균 8.4개월, 최대 평균 15.1년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별 유형 및 사별 경험의 특성

사별 대상을 제시한 연구는 총 27편(82%)이었다. 이 중 사별 대상이 가족인 경우가 18편으로 7편이 배우자, 6편이 자녀였으며 배우자와 자녀를 모두 포함한 경우는 4편이었다. 보다 포괄적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친구 등 가족 및 지인을 사별 대상으로 포함하여 진행

한 연구는 9편이었다.

사별 유형을 제시한 연구는 22편(67%)이었다. 이 중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연구는 8편, 질병, 사고, 자살 등 사별 유형이 혼재되어 있는 연구는 총 10편이었다. 그 외 암 질환을 다룬 연구는 1편, 자살로 제한한 연구는 3편이었다. 각 연구의 사별 유형은 표 2에 요약하였다.

국내 복합 비애의 개념적 특성

Kim 등(2019)은 성인을 대상으로 사별 경험 이후 PGD 증상의 패턴을 파악하고자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수행하고, PGD 증상에 따라 증상이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은 ‘적응 집단’과 증상이 심한 ‘고위험 집단’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 고인의 죽음 특성과는 관계없이 적응 집단과 고위험 집단 모두 외상성 스트레스가 분리 디스트레스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외상성 디스트레스 중에서도 원통함을 측정하는 문항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 또한 인구사회학적 변인 중에서는 종교가, 사별과 관련된 변인 중에서는 고인과의 관계, 사별 원인, 사별 이후 경과 기간 및 고인의 사망 연령이 적응 집단과 고위험 집단의 분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Jung 등(2014)은 복합 비애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고자 사별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유가족을 대상으로 개념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복합 비애 양상은 ‘사별 특정적 적응 영역-일반 적응 영역’과 ‘사별 충격 영역-사별 대처 영역’의 2개 차원과, ‘우울’, ‘사별 후 망연자실’, ‘대인관계 회피’, ‘사별 후 변화’, ‘사별 감정 및 고인회상’, ‘고인 긍정화 및 지속 유대’의 6개 군집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복합

비애 증상 양상이 시간 경과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여러 기능 영역에서 사별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이 다차원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연구 대상자가 직접 사별 경험에 대한 대표성을 평정하게 했을 때 ‘고인 긍정화 및 지속 유대’ 군집이 가장 대표성이 높은 반면 ‘대인관계 회피’ 군집은 대표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 비애에 대한 측정 도구

복합 비애를 측정하는데 사용된 도구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1개의 척도가 사용되었, 2개의 척도를 사용한 연구는 1편이었다. 특히 약 66%의 연구가 ICG(ICG-K, ICG-r 포함)를 사용하여 복합 비애를 측정했고 약 24%는 PG-13을 사용하였다(표 2).

복합 비애 척도(Inventory of Complicated Grief, ICG)는 Prigerson 등(1995)이 개발한 척도다. ICG는 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현재 느끼는 감정의 정도를 5점 Likert 척도에 평정하도록 구성된 총 19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Kim과 Song(2020)이 국내에서 타당화 연구를 진행하였고,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58이었다.

ICG를 사용한 연구는 20편으로, 2020년 ICG에 대한 국내 타당화 연구가 진행되기 전에는 자체적으로 번안한 버전을 사용하였다. 그 중 Nam(2015b)이 번안한 척도를 ICG 혹은 ICG-K라고 명명하고 사용한 연구는 5편이었고, Jung(2015), Kim(2016), Han 등(2016)이 번안한 버전을 사용했다고 기술한 연구는 각 1편씩이었다. 이외 2편의 연구는 연구자가 척도를 스스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고 밝혔고, 척도 번안에 대한 기술이 없는 연구는 10편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 문헌 중 ICG-r (Inventory of

표 2. 연구 특성표: 연구대상 논문 대상자 특성, 사별 특성과 측정 도구 및 연구설계 (N=33)

주저자, 출판연도	연구 대상	평균연령(SD)	사별대상	사별유형	사별 후 경과 기간(SD)	사별 후 기간 제한	CG 측정도구	연구 설계
Hwang, 2011	18세 이상 성인(n=436)	37.8(16.41)	가족 및 지인 (배우자, 자녀, 친척, 친구 등)	혼계	N/A	6개월 이상	PG-13	양적연구(조사)
Cho, 2012	성인(n=146)	53.0(13.27)	가족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혼계	15.1년(12.9년)	6개월 이상	ICG-r	양적연구(조사)
Jung et al., 2014	성인여성 (n=18)	37.4(10.91)	가족 (부모, 배우자, 자녀 등)	-	59.1개월	6개월 이상	-	질적연구
Nam, 2015a	18세 이상 성인(n=42)	45.57(13.04)	가족 및 지인 (배우자, 친구)	혼계	8.4개월	N/A	BDCGA, ICG	양적연구 (치료효과)
Nam, 2015b	노인 (n=859)	77.04(N/A)	가족(배우자)	자살	215.30주	N/A	ICG	양적연구
Nam, 2016a	65세 이상 노인(n=859)	77.04(6.17)	가족(배우자)	혼계 (자살 포함)	214개월	N/A	ICG-K	양적연구(조사)
Nam, 2016b	노인 (n=89)	67.45(2.79)	N/A	N/A	465.22일 (20.62일)	6개월 이상	ICG	양적연구 (치료효과)
Byeon et al., 2016	성인 (n=53)	N/A	가족(배우자, 자녀 등)	자살	N/A	N/A	ICG-r	양적연구(조사)
Han et al., 2017	성인 (n=87)	N/A	가족(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세월호	N/A	N/A	ICG	양적연구(조사)
Huh et al., 2017	성인 (n=84)	47.4(0.73)	가족(자녀)	세월호	18개월(1개월)	-	ICG	양적연구(조사)
Nam, 2017	노인(n=168)	72.07(6.11)	가족(배우자)	N/A	587일(66.81일)	N/A	ICG	양적연구 (치료효과)
Jang et al., 2017	성인 (n=84)	44.95(8.60)	가족(자녀)	세월호	N/A	N/A	ICG	양적연구 (뇌파연구)
Kang & Lee, 2017	성인(n=706)	N/A	가족 및 지인(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구 등))	혼계	N/A	N/A	K-PG-13	양적연구 (타당화)
Jung, 2017	성인 (n=120)	34.87(9.23)	가족 및 지인(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연인))	혼계	N/A	6개월 미만 포함	ICG	양적연구(조사)
Huh et al., 2017	성인 (n=81)	47.96(4.27)	가족(자녀)	세월호	18개월(1개월)	-	ICG	양적연구(조사)
Nam, 2018	노인 (n=29)	69.66(13.13)	가족(배우자)	N/A	265.59일(20.24)	N/A	ICG	양적연구 (치료효과)

표 2. 연구 특성표: 연구대상 논문 대상자 특성, 사별 특성과 측정 도구 및 연구설계 (N=33) (계속)

주저자, 출판연도	연구 대상	평균연령(SD)	사별대상	사별유형	사별 후 경과 기간(SD)	사별 후 기간 제한	CG 측정도구	연구 설계
Yun et al., 2018	성인 (n=56)	46.04(8.43)	가족(자녀)	세월호	18개월 (t1) 30개월 (t2)	-	ICG	양적연구(조사)
Kim & Kwon, 2018	성인 (n=164)	62.86(9.71)	가족(배우자)	암	38.57개월(SD 25.78)	12개월 이상	ICG	양적연구(조사)
Shin & Lee, 2018	성인 (n=566)	N/A	N/A	혼계	N/A	6개월 이상	K-PG-13	양적연구(조사)
Lee et al., 2018	성인 (n=668)	N/A	N/A	N/A	N/A	6개월 이상	K-PG-13	양적연구(조사)
Lee, J. H. et al., 2018	65세 이상 독거노인(n=200)	76.56(5.92)	가족 및 지인 (배우자, 자녀, 친척, 친구 등)	N/A	N/A	N/A	ICG-K	양적연구(조사)
Han et al., 2019	성인 (n=56)	93(t1) 56(t2)	가족	세월호	18개월 (t1) 30개월 (t2)	-	ICG	양적연구
Kim & Lyu, 2019	65세 이상 노인 (n=1998)	75.29(6.28)	가족(배우자)	N/A	N/A	N/A	ICG-K	양적연구(조사)
Kim & You, 2019	만 19세~60세 성인 (n=187)	32.9(11.24)	가족 및 지인 (부모, 형제자매, 자녀, 연인 등)	혼계	N/A	6개월 이상	ICG	양적연구(조사)
Kim et al., 2019	성인 (n=668)	48.13(10.53)	가족 및 지인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친구 등)	혼계	N/A	6개월 이상	K-PG-13	양적연구(조사)
Shin et al., 2019	성인 (n=668)	48.13(10.53)	N/A	N/A	N/A	6개월 이상	K-PG-13	양적연구(조사)
Choi & Cho, 2020	성인 (n=122)	48.8(4.1)	가족(자녀)	세월호	약 2년	-	SCI-CG	양적연구(조사)
Huh et al., 2020	성인 (n=81)	47.96(4.27)	가족(자녀)	세월호	약 18개월	약 18개월 후	ICG	양적연구(조사)
Kim & Song, 2020	성인 (n=495)	38.4(12.10)	가족 및 지인 (친척, 친구 등)	혼계	N/A	제한 없음	K-ICG	양적연구 (타당화)
Nam et al., 2020	남성 노인 (n=26)	71.03(2.86)	가족(배우자)	N/A	M=11.54	1년 이내	ICG	양적연구 (치료효과)
Lee, 2020	18세 이상 성인 (n=340)	50.3(17.55)	가족 및 지인 (부모, 배우자, 자녀, 조부모 등)	자살	약 7년 4개월 (SD=4860.28)	3개월 이상	한국형 복합 비에 척도	양적연구(조사)
Lim et al., 2020	성인 (n=576)	40.41(9.54)	N/A	N/A	N/A	6개월 이상	K-PG-13	양적연구(조사)
Kim, 2021	성인 (n=301)	34.17(7.50)	N/A	N/A	N/A	6개월 이상	K-PG-13	양적연구(조사)

Complicated Grief-revised, ICG-r)을 사용한 논문은 총 2편이었다. ICG-r은 Prigerson 등이 1995년에 개발한 ICG 척도를 Prigerson과 Jacobs (2001)이 개정한 것으로 국내에서 내적 일치도 (Cronbach's α)는 .99로 보고되었다(Cho, 2012). ICG-r은 사별과 관련한 분리 고통과 외상적 고통의 2가지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30 문항의 5점 Likert 척도에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ICG 다음으로 많이 사용한 척도가 지속성 비애 장애 척도(Prolonged Grief Disorder-13, PG-13)이다. 이는 DSM-5에 제안된 PGD 진단 기준에 준하여 개발한 척도이다(Prigerson et al., 2009). 총 1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리 디스트레스와 인지, 정서, 행동 증상을 묻는 11문항에 대해서 5점 Likert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기간 조건을 묻는 문항과 사회기능의 손상을 묻는 문항은 '예', '아니오'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PG-13은 Kang과 Lee(2017)가 국내에서 타당화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 문헌 중 PG-13을 사용한 연구는 총 8편이었는데 그중 1편은 연구자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7편은 Kang과 Lee(2017)가 번안한 버전을 사용하였다.

Jung(2015)이 예비연구를 통해 개발한 '한국형 복합 비애 척도'를 사용한 연구는 1편이었다. 이 척도는 총 2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 상에 평정하게 되어 있다. 문항은 '거의 하루 종일 고인이 생각나서 괴롭다', '고인의 죽음에 내 탓을 하게 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역기능성과 분리 스트레스 2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임상 면담을 통해 복합 비애를 측정하는 연구는 총 2편이었다. 1편은 복합 비애를 위한 구조화된 임상 면담(Brief Dimensional Complicated

Grief Assessment, BDCGA)을 사용하였고, 다른 1편은 복합 비애를 위한 임상적 면담 (Structured clinical interview for CG, SCI-CG)을 사용하였다. 이 중 BDCGA는 Shear 등(2011)이 복합 비애를 측정하기 위해 제안한 면담 평가로 총 5개 질문에 대해 0점(전혀 아님)부터 2점(많이) 사이에 평정하며, 총점이 4점 이상이면 복합 비애를 경험하고 있다고 본다.

복합 비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 포함된 논문 중 복합 비애 수준과 관련된 인지 및 정서적 변인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다음과 같다(표 2, 3). 먼저 불안 애착과 복합 혹은 PGD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2편의 연구에서는 불안 애착과 회피 애착이 모두 복합 비애 증상과 관련이 있었다. 특히, 불안 애착과 PGD의 관계를 애도 회피가 매개하였다(Lim et al., 2020). 불안 애착은 대처 전략의 효과와 관련 없이 비애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uh et al., 2020).

복합 비애와 인지적 과정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반추의 유형에 따라 복합 비애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즉, 외상 사건과 관련한 부정적 사고가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과정과 관련한 침습적 반추는 복합 비애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Shin et al., 2019). 반면, 성장적 반추나 의도적 반추는 복합 비애 증상을 낮추거나 외상 후 성장과 관련이 있었다(Huh, et al., 2020, Lee, 2020). 즉 성장적 반추는 복합 비애와 외상 후 성장의 관계를 매개하였고(Lee, 2020), 사건 관련 침습적 반추는 회피애착과 복합 비애 관계를 매개하였다(Huh et al., 2020). 예기치 못한 사별을 경험한 집단에서만 침습적 반추와 의도

표 3. 주요 주제 및 주요 연구 결과 요약 (N=33)

주저자, 출판년도	주요 주제	주요 연구 결과
Hwang, 2011	심리적 부적응, 부정적 인지	지속된 비애 증상 수준과 부정적 인지, 심리적 부적응 간에 상관성이 높고, 지속된 비애 증상과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에서 부정적 인지가 부분 매개하였음.
Cho, 2012	외상적 사건, 애도 증상	사건의 폭력성이 의미 만들기와 사건 중심성을 통해 애도 증상에 영향을 미쳤고, 부적응적 사고통제 전략이 사건 중심성에 영향을 미침.
Jung et al., 2014	비애, 개념도	사별 후 비애 경험의 심층적 내적 구조는 사별 특정적 적응 영역-일반 적응영역과 사별 충격 영역-사별 대처 영역으로 구성됨.
Nam, 2015a	심리교육	사별자 및 사별자의 지지자를 대상으로 복합 비애에 관한 심리교육을 시행한 결과, 복합 비애와 우울 증상이 감소함.
Nam, 2015b	죽음 불안, 자살 사별	남성일수록, 나이가 적을수록, 죽음 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로 인한 사별의 경향이 있을수록 복잡성 비애 수준이 높음.
Nam, 2016a	자살사별, 경험 회피	자살로 인한 사별과 복합 비애와의 관계를 경험 회피가 매개함.
Nam, 2016b	CGT, 사회적 지지자(Supportive person)	CGT를 실시한 집단이 지지적 상담을 실시한 집단보다 복합 비애와 우울 증상이 개선됨. 특히 사회적 지지자가 CGT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치료에 매우 중요함.
Byeon et al., 2016	내재적 종교성향, 의미 재구성	내재적 종교성향은 의미 재구성을 매개로 복합 비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Han et al., 2017	세월호, 정신건강 개입	사별 전에 정신 건강 개입 경험이 없는 유가족이 사건 이후 정신건강 개입을 받은 경우 복합 비애가 감소함.
Huh et al., 2017	세월호, 복합애도	참여자의 94%가 복합애도 증상, 절반이 심각한 우울증, 70.2%가 임상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PTSD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Nam, 2017	심리교육, 자기 돌봄, 효능감, 개인의 성장감	단기 회복 중심 개입 프로그램(사별에 대한 심리교육 및 자기 돌봄)이 복합 비애 수준을 감소시킨. 개입방법과 복합 비애 사이의 관계를 자기효능감과 개인의 성장감(sense of personal growth)이 매개함.
Jang et al., 2017	세월호, 베타파(beta power)	유가족은 통제 집단보다 정면 베타파가 더 높았으며, 정면 베타파와 불면 증상 간 유의한 역상관이 나타남.
Kang & Lee, 2017	PG-13 한국판 타당화	PG-13은 2개 하위 요인(트라우마성 디스트레스, 분리 디스트레스)으로 구성되었고, 우울, 불안, PTSD와 상관성이 있었음.
Jung, 2017	사회적 반응, 의미 재구성	성별, 연령, 사별 기간을 통제한 후에도 부정적 사회적 반응과 복합 애도의 관계에서 의미 재구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함.
Huh et al., 2017	세월호, 애착 유형, 대처 전략	문제중심 대처는 회피애착과 수치심/죄책감의 관계를 조절함. 불안 애착과 비애 반응에서 대처 전략의 조절 효과는 유의하지 않음.
Nam, 2018	가족기반 치료	가족기반 복합 비애 심리치료가 개인 기반 복합 비애 심리치료보다 복합 비애 증상 감소와 직업 및 사회적 기능 증진에 효과적이었음.
Yun et al., 2018	세월호, 울분감	사별 18개월 후보다 30개월 후에 울분감이 증가한 경우에 불안, PTSD 증상, 복합 비애가 증가했으며, 울분감이 감소한 경우, 우울, 불안, PTSD 증상, 복합 비애가 감소하였음.
Kim. & Kwon, 2018	암환자, 사별 대처, 사별준비	말기치료의 질은 사별 준비를 매개로 하여 복합적 슬픔, 사별대처, 임종의 질에 간접 효과를 미쳤음. 사별준비는 사별에 대한 대처를 매개로 하여, 복합적 슬픔에 간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주요 주제 및 주요 연구 결과 요약 (N=33)

(계속)

주저자, 출판년도	주요 주제	주요 연구 결과
Shin & Lee, 2018	문제성 음주, 정서조절곤란	지속 비애와 문제성 음주의 하위변인인 의존음주, 음주량과 빈도, 음주 관련 문제의 관계에서 정서조절곤란이 부분매개효과가 있었고, 사별 유형에 따라 매개모형의 차이가 있었음.
Lee et al., 2018	지각된 사회적 지지, 외상 후 부정적 인지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지속 비애 증상과의 관계에서 자기비난과 세상에 대한 부정적 신념의 매개효과를 정서조절곤란이 조절하였음.
Lee, J. H. et al., 2018	비애, 사회적 지지, 자살 사고	비애수준은 독거노인의 자살생각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음. 상호의존적 사회적 지지는 자살생각과 관계가 있었고, 비애 수준과 자살 생각의 관계에서 상호의존적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유의했음.
Han et al., 2019	세월호, 사별, 외상성 상실	사별 18개월 후와 30개월 후를 비교했을 때 유가족이 경험하는 우울감은 감소하였고, PTSD의 심각도는 시간에 걸쳐 복합 비애에 영향을 줌.
Kim & Lyu, 2019	배우자 사별, 죽음불안	배우자 사별 경험이 부재한 집단에 비해 정상 비애 집단의 죽음불안 수준이 낮고, 복잡성 비애 집단은 죽음불안 수준이 높음.
Kim & You, 2019	대처 유연성, 미래 중심적 대처, 외상 중심적 대처	미래 중심적 대처와 대처 유연성이 높을수록 복잡성 사별 비애 수준이 낮음. 단, 사별 경과 기간에 따라, 외상 중심적 대처와 복잡성 사별 비애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남.
Kim et al., 2019	사별, 잠재 프로파일 분석	사별 경험 성인의 지속 비애 증상에 대한 잠재 프로파일 분석 결과 적응집단과 고위험 집단으로 분류되었고, 두 집단 모두 외상성 디스트레스가 분리 스트레스보다 높게 나타남.
Shin et al., 2019	사별 예측, 지각된 사회적 지지, 지속 비애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지속 비애의 관계를 외상 후 부정적 인지가 매개하였고, 외상 후 부정적 인지와 침습적 반추의 이중매개효과가 발견됨. 단, 사별을 예측하지 못한 경우에만 변인간 관계가 유의함.
Choi & Cho, 2020	세월호, 복합 비애, 지각된 정의	참여자는 재난 후 낮은 수준으로 지각된 정의와 관련하여 높은 수준의 PTSD 증상과 복합 비애 증상을 보임.
Huh et al., 2020	세월호, 애착 유형, 대처 전략	문제중심 대처는 회피애착과 수치심/죄책감과의 관계를 조절함. 반면, 불안애착과 비애 반응의 관계를 대처 전략이 조절하지 못함.
Kim & Song, 2020	K-ICG, 타당화	K-ICG 요인 분석 결과, 단일요인임을 확인하였고, 내적 합치도를 검증하였음. 외적 타당도 검증 결과, CES-D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남.
Nam et al., 2020	음주 문제 모니터링, 사별 남성 노인	음주 문제 모니터링 및 CGT(Complicated grief treatment)에 기반을 둔 단기 개입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실험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해 음주 관련 문제 및 복잡성 비애 수준이 감소함.
Lee, 2020	자살 유가족, 외상 후 성장, 회복탄력성, 성장적 반추	복합 비애와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회복 탄력성과 성장적 반추 각각의 매개효과가 유의함. 복합 비애와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회복 탄력성은 성장적 반추에 선행하는 이중매개함.
Lim et al., 2020	애도회피, 불안애착, 회피 애착	불안애착은 애도회피에 유의한 영향을 주며, 애도회피는 지속 비애에 유의한 영향을 줌. 애도회피는 불안애착과 지속 비애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음.
Kim, 2021	사회적 지지, 탈중심화, 의미 재구성	사회적 지지와 지속 비애 간 관계에서 의미 재구성의 역할은 사별 예측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반면, 사별 예측 여부와 관련 없이 탈중심화와 지속 비애 간 관계들 의미 재구성이 완전매개함.

적 반추가 복합 비애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여(Shin et al., 2019), 반추와 복합 비애의 관계에서 사별 예측 여부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는 연구도 있었다.

세 번째로,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복합 비애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별 경험에 대한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외상 후 부정적 인지를 통해 복합 비애에 영향을 주었고(Lee et al., 2018, Shin et al., 2019), 탈중심화와 의미 재구성을 통해 복합 비애에 영향을 미쳤다(Kim, 2021). 특히, 자기 비난과 세상에 대한 부정적 신념의 간접 효과를 정서 조절 곤란이 조절하여 복합 비애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가 있었다(Lee et al., 2018). 반추와 마찬가지로 사별의 예측 여부는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복합 비애의 관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Shin et al., 2019). 이와 유사하게 Kim(2021)의 연구에서도 예기치 못한 사별을 경험한 집단에서만 사회적 지지가 복합 비애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외상성 상실과 복합 비애

사별 유형 중 외상성 상실과 복합 비애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총 13편이었다(표 2, 3). 이 중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연구는 9편, 자살과 관련한 연구는 4편이었다.

먼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월호 사건 유가족은 대부분 사건 이후 1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도 심각한 수준의 우울증과 복합 비애 및 PTSD 증상을 경험하였고(Huh et al., 2017), 30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복합 비애 및 PTSD 증상이 유지되었다(Yun et al., 2018, Han et al., 2019). 세월호 사건 발생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유가

족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서도 유가족의 90.1%가 복합 비애 증상이 지속되었고 절반 이상이 PTSD 증상을 경험하였다. 즉, 외상성 상실의 경우에는 복합 비애와 PTSD 증상이 장기간 유지되었다(Choi & Cho, 2020).

특히 PTSD 증상의 심각도는 지속적으로 복합 비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PTSD 증상 및 비애감은 시간이 지나면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나, 세월호 사건 후 18개월, 길게는 30개월 이후의 시점에도 대부분의 유가족이 PTSD 증상과 높은 수준의 복합 비애 증상을 경험하였다(Huh et al., 2017, Yun et al., 2018, Han et al., 2019).

이 외에 세월호 유가족의 복합 비애 증상과 관련이 높은 변인은 울분감(reactive embitterment)과 정의감 지각이었다. 세월호 사건 18개월 이후에도 65.5%의 유가족이 유의한 수준의 울분감을 경험하고 있었고(Huh et al., 2017), 30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는 오히려 울분감이 증가하였다(Yun et al., 2018). 특히 울분감의 변화는 복합 비애를 비롯한 다른 심리적 증상과 관련이 있었다. 정의감에 있어서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정의감을 낮게 지각할 때 세월호 유가족의 복합 비애 및 PTSD 증상이 높았다(Choi & Cho, 2020).

자살 사별 경험은 복합 비애와 관계가 있었다(Nam, 2016a), 노인의 경우 배우자를 자살로 사별한 경험이 외상적 고통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Nam, 2015b). 그리고 자살 사별 경험과 복합 비애 간의 관계를 경험적 회피가 매개하였다(Nam, 2016a),

한편 자살 사별 경험과 복합 비애의 관계에서 보호요인이 될 수 있는 변인을 탐색한 연구도 있었다. 종교성향이 보호요인의 하나로, 내재적 종교성향이 높을수록 복합 비애 수준

이 낮았고, 내재적 종교성향과 복합 비애 간 관계에서 의미 재구성이 매개 역할을 하였다(Byeon & Lee, 2016). 또한, 자살 유가족의 복합 비애와 외상 후 성장 간의 관계에서 회복 탄력성과 성장적 반추가 매개 역할을 했다(Lee, 2020). 즉, 재난, 자살과 같은 외상성 상실의 경우 복합 비애가 장기간 유지되기 쉬우며, 울분감과 정의감의 지각, 내재적 종교성향, 회복 탄력성, 성장적 반추와 같은 변인이 회복과 관련될 수 있겠다.

사별 경험 대처 과정과 복합 비애

사별 경험에 대한 대처 과정과 복합 비애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총 6편이었다(표 3). 사별 경험에 대한 대처 과정에서 미래 중심적 대처와 대처 유연성, 의미 재구성의 중요성을 탐색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별 경과 기간이나 사별 원인과 상관없이 미래 중심적 대처와 대처 유연성이 높을수록 복합 비애 수준이 낮았다(Kim & You, 2019). 의미 재구성의 경우 부정적인 사회적 반응이 복합 비애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Jung, 2017), 사회적 지지가 복합 비애에 미치는 영향(Kim, 2021)과 내재적 종교성향이 복합 비애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였다(Byeon & Lee, 2016). 특히 사건에 대한 의미를 재평가하는 과정과 관련한 ‘의미 만들기’는 폭력적인 사망으로 인한 사별의 경우에도 애도 증상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Cho, 2012).

암환자의 경우에도 사별 준비와 사별 대처가 복합 비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 Kwon, 2018). 따라서 사별 전 충분한 준비 과정과 적절한 대처 전략을 탐색하는 것이 사별 이후 심리적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

을 것이다.

복합 비애에 대한 치료적 접근

복합 비애에 대한 치료 개입에 대한 국내 연구는 33편의 연구 중 5편에 불과했다. 각 연구는 복합 비애에 대한 심리교육(Nam, 2015a), 복합 비애 치료(Nam, 2016b), 단기 회복 중심 개입 프로그램(Nam, 2017), 가족 기반 복합 비애 치료적 개입(Nam, 2018), 음주 문제 모니터링 프로그램(Nam et al., 2020)이 복합 비애 증상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첫 번째로, Nam(2015a)은 사별을 경험한 성인과 지지자를 대상으로 복합 비애에 대한 심리교육을 1, 2단계로 나누어 총 4회 진행하였다. 1단계에서는 사별자 전체를 대상으로 복합 비애에 대한 심리교육을 진행하였고 2단계에서는 사별 경험으로부터 회복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방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지자와의 관계에 대한 면담 등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복합 비애와 우울 증상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두 번째로, 사별을 경험한 노인을 대상으로 복합 비애 치료(CGT)와 지지적 상담을 진행한 집단이 지지적 상담만 진행한 집단보다 복합 비애와 우울 증상이 개선되었다(Nam, 2016b).

세 번째로, 배우자를 사별한 노인을 대상으로 사별 경험에 대한 심리교육과 자기 돌봄에 초점을 맞춘 단기 회복 중심 개입 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가 있었다. 연구 결과, 치료 프로그램이 복합 비애 수준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Nam, 2017).

네 번째로, 치료 유형에 따라 효과를 비교한 연구도 있었다. Nam(2018)은 배우자를 사별한 노인을 대상으로 가족 기반 복합 비애 치

료(Family based CGT)와 개인 기반 복합 비에 치료(Individual based CGT)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가족 기반 복합 비에 치료에 참여한 집단이 복합 비에의 감소와 사회적 손상의 회복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음주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음주 문제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8주 간 실시하고 음주 문제와 복합 비에 완화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가 있었다(Nam et al., 2020).

논 의

복합 비에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본격화되었고, 2013년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 5판(DSM-5)에 추가 연구가 필요한 진단 상태에 PGD 진단 기준이 추가되면서 더욱 활성화되었다. 국내에서는 2010년도에 이르러 복합 비에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고 2014년도 세월호 사건 이후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복합 비에에 대한 연구 33편을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을 통해 분석하여 복합 비에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문헌 탐색 결과, 2015년 이전에 비해 2015년도 이후 연구가 약 5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최근 5년 사이에 복합 비에에 대한 연구자의 관심이 증가한 것을 반영한다.

복합 비에와 관련된 국내 연구를 살펴볼 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시사되었다. 첫째로, 용어 사용에서 일관성이 부족하였다. 연구자에 따라 ‘Grief’를 ‘애도’와 ‘비에’로 번역하여 사용하였고, ‘Complicated’를 ‘복잡성’, ‘복합’ 등으로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가 ‘Grief’를 ‘비에’로, ‘Complicated’

를 ‘복합’으로 번안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복합 비에’라는 용어로 통칭하는 것이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합 비에와 PGD 역시 연구자에 따라 용어 사용에 차이가 있었으며, 측정 도구에 따라 다르게 명명하기도 하였다. 복합 비에는 일반적으로 사별 후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별로 인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상태(Prigerson et al., 1995)를 의미한다. 반면, PGD는 DSM-5 진단 기준을 고려했을 때 사별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죽은 사람에 대한 지속적인 갈망과 그리움, 강렬한 슬픔과 잦은 울음, 죽은 자에 대한 집착, 죽음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집착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에 복합 비에 혹은 PGD로 개념화할 때 측정 도구뿐 아니라 사별 후 경과 기간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두 번째로, 사별 후 경과 기간이나 사별의 특성과 유형, 사별 대상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복합 비에를 다룬 연구는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의 사별 후 경과 기간에 대해 언급한 연구는 전체의 약 56%에 불과했다. 또한, 사별 유형 중 자살 등 외상적 사별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Kim 등(2021)은 국내 사별 경험자의 복합 비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고인의 사망 시점이 최근일수록, 고인과 교류 수준이 많을수록, 고인에 대한 주관적 친밀감이 높을수록 복합 비에의 위험이 컸다. 자살로 인한 사별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복합 비에의 위험도가 높았다. 이러한 연구는 복합 비에의 메커니즘을 살펴볼 때 사별 후 경과 기간, 사별 대상, 사별 유형 등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추후 진행할 연구에

서는 연구 대상자의 사별 관련 특성에 대해 세부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별 관련 특성을 통제된 상태에서 사별 경험이 복합 비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복합 비애에 대한 측정 도구 사용에서 일관성이 부족하였다. 국내에서 복합 비애를 연구할 때 사용하는 측정도구는 대부분 복합 비애 척도(ICG) 혹은 지속성 비애 장애 척도(PG-13)다. 그런데 많은 연구에서 이 척도를 연구자가 자체적으로 번안하여 사용하거나 타당화 이전의 번안된 버전을 사용했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국내에서 상기 척도가 타당화된 것은 PG-13이 2007년(Kang & Lee, 2017), ICG가 2020년(Kim & Song, 2020)이었고, 두 연구 모두 그 대상이 일반 성인군이었다. ICG의 경우, 본 연구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2016년에 청소년을 대상으로도 타당화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0.87이었다(Han et al., 2016).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향후 복합 비애 및 지속성 비애를 측정할 때 타당화 연구가 이루어진 척도의 활용을 통해 측정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네 번째로, 사별 경험과 복합 비애 과정에서 정서 요인보다 인지 요인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다수였다. 이에 향후 정서적 무감동(emotional numbness), 울분감과 같은 강렬한 정서적 고통감 등 복합 비애와 관련한 정서 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연구가 필요하겠다.

다섯 번째로, 연구방법론상, 본 연구의 대상 논문 중 양적 연구가 90%였으며 주로 복합 비애와 관련한 변인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보는 탐색 연구였다. 이를 고려했을 때, 향후 복

합 비애의 경과와 복합 비애의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인과관계를 탐색하기 위해서 종단 연구, 질적 연구 등의 다양한 연구 방법을 통한 접근이 필요할 수 있겠다. 이러한 국내 연구의 한계점은 아직 국내에서 복합 비애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지는 초기 단계라는 점, 복합 비애에 개념에 대한 합의된 논의가 부족했던 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와 그 의미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복합 비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된 불안 및 회피 애착과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 사회적 지지의 지각 수준을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요약하겠다.

복합 비애와 불안 및 회피 애착은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복합 비애는 애착 대상과의 상실에 따른 심리 및 정서 반응을 수반한다. 많은 선행연구는 불안 애착과 회피 애착과 같은 불안정 애착이 복합 비애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의 하나라고 보고 있다(Fraley & Bonanno, 2004; Stroebe et al., 2010). 최근 fMRI 연구에서는 PGD가 기분 장애나 불안 장애의 범주에 속하기보다는 보상 체계의 손상과 관련된 애착관련 장애일 가능성을 제안한 바 있다(Prigerson et al., 2021). 이러한 점에서 향후 사별로 인한 사회적 보상 및 애정 대상의 상실과 관련한 보다 다차원적인 애착 및 친밀감 요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해 보인다.

복합 비애에 영향을 미치는 인지 과정 중에서는 반추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가 다수였다. 침습적 반추는 복합 비애에 부정적인 관계가 있으나, 성장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는 복합 비애 증상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는 사별 경험 이후 반추 과정이 의미 만들기(meaning-making)와 복

합 비에 관계를 매개한다고 밝힌 외국 연구결과와 일치한다(Milman et al., 2019).

지각된 사회적 지지는 예상치 못한 사별을 경험한 경우에 복합 비애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점에서 재난, 폭력, 자살 등 외상성 사별의 경우 사회적 지지의 확보와 개입이 치료에 중요할 수 있음이 시사된다. 실제 사별자의 사회적 지지자가 사별자와 함께 CGT에 참여했을 때 효과가 더욱 좋았다(Nam, 2016b). 따라서 사별자의 증상을 이해하고 회복 과정을 도울 수 있는 조력자이자 사회적 연결 자원으로서 사회적 지지자를 치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두 번째로, 미래 중심적 대처와 대처 유연성, 성장적 및 의도적 반추와 의미 재구성, 사회적 지지가 복합 비애의 보호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지지와 의도적 반추가 복합 비애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사별의 예측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이는 복합 비애에 대한 치료과정에서 사별 경험에 대한 의미 탐색 과정과 의미 재구성 및 재평가 과정이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한국의 사회문화적 요인을 고려하여 사별 경험의 특성을 탐색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 성인의 경우 복합 비애 경험이 인지, 행동, 정서 차원 및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발현되며, 이 와중에 대인관계에서의 회피 경험과 더불어 고인에 대한 긍정화가 나타났다(Jung et al., 2014). 또한 PGD 증상 패턴을 보면 분리 디스트레스보다 외상성 디스트레스를 더 경험하며, 외상성 디스트레스 중에서도 원통합의 수준이 높았다. 이를 통해 추측해보았을 때, 한국 사회에서 사별의 경험은 고인과의 분리에 의한 고통감

보다는 그 자체로도 사별자에게 외상적인 측면이 강할 수 있으며, 사별자는 원통하고 비탄스러운 마음을 주로 호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사별 경험 후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대인관계 내에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집단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의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Jung et al., 2014).

네 번째로, 본 연구에서 외상성 상실로 분류되는 세월호 사건과 자살을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재난 이후 길게는 3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유가족 대부분이 복합 비애와 PTSD 증상과 더불어 우울감이나 울분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사별의 경우에도 복합 비애 증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고나 재난 및 재해, 자살, 폭력 등과 같은 외상성 상실의 경우, 비외상적인 상실을 경험한 것에 비해 복합 애도 증상, PTSD 증상 및 우울증 등이 높은 수준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상성 상실의 경우는 복합 비애에 대한 심리치료적 개입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외상성 상실을 다룬 문헌 중 상당수가 세월호 사건과 자살 사별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향후 상실의 유형을 보다 다양하게 세분화하거나 상실 유형에 따라 복합 비애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탐색하는 연구 등을 통해 외상성 상실과 복합 비애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해야겠다.

다섯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복합 비애에 대한 치료적 개입 방안과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만, 치료 효과를 탐색한 연구가 33편의 논문 중 5편에 불과했으며 모두 한 명의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복합 비

애에 대한 치료 개입에 복합 비애에 대한 심리교육 과정이 필요하며, 사회적 관계의 질이나 음주 문제 등 사별 이후 경험할 수 있는 적응적 문제에 대한 개입이 복합 비애 증상의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국외에서는 복합 비애 치료(CGT, Shear, 2015), 외상성 비애를 위한 단기 절충적 심리치료(BEP-TG), 복합 비애를 위한 인지행동치료(Cognitive-behavior therapy for complicated grief) 등 복합 비애에 대한 치료 프로토콜이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적용이나 치료적 개입 효과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 사별 유형이 혼재되어 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Song과 Kang(2017)은 상실을 경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외상중심 인지행동치료(Trauma-Focused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TF-CBT)를 기초로 애도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복합 애도 증상, 내재화 및 외현화 증상, 외상후 스트레스 문제에 미치는 효과성을 검증한 바 있다. 이에 향후 복합 비애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과 복합 비애에 대한 근거 기반 치료적 접근과 효과성 검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약 10년 간 국내에서 수행된 복합 비애에 대한 연구 결과를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복합 비애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에 대해 살펴본 최초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복합 비애에 대한 관심은 2015년 이후에 증가하였으나 관심에 비해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최근 10년간 국내 연구동향을 요약하면, 국내 복합 비애 연구는

사별의 유형과 대상을 세분화하지 않은 연구가 다수였고, 복합 비애와 인지 및 정서 요인 그리고 관계 요인과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상성 사별의 경우, 세월호 사건에 대한 연구가 다수인 반면, 자살이나 범죄 등 다양한 외상성 사별에 대한 복합 비애 연구는 적었으며, 복합 비애에 대한 치료 효과를 검증한 연구도 부족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복합 비애의 유형 및 복합 비애의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다.

이에 반해 국외에서는 복합 비애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며(Chen, 2022, Mason et al., 2020, Nielsen et al., 2017, Sekowski & Prigerson, 2022), 최근에는 COVID-19를 비롯하여 질병, 자살 등 특정 유형의 사별과 사별 대상을 구분하여 복합 비애를 살펴보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Diolaiuti et al., 2021, Gang et al., 2022, Glickman, 2021). 또한 CGT 등 효과성이 검증된 복합 비애 치료 이외에도 인터넷 기반 인지 행동 치료, 사별 지지 프로그램 등 다양한 치료 개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Mauro et al., 2022, Tur et al., 2022, Weber et al., 2022).

본 연구는 복합 비애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복합 비애에 대한 연구 방향과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다만, 본 연구에서 연구 질을 평가하여 최종 분석에 포함된 연구는 33편에 불과하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복합 비애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증가하고 국내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복합 비애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Washington, DC: APA press.
- Boelen, P. A. (2006). Cognitive-behavioral therapy for complicated grief: Theoretical underpinnings and case descriptions. *Journal of Loss and Trauma, 11*(1), 1-30.
<https://doi.org/10.1080/15325020500193655>
- Boelen, P. A., van den Hout, M. A., & van den Bout, J. (2006). A cognitive-behavioral conceptualization of complicated grief.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13*(2), 109-128.
<https://doi.org/10.1111/j.1468-2850.2006.00013.x>
- Burke, L. A., Neimeyer, R. A., & McDevitt-Murphy, M. E. (2010). African american homicide bereavement: Aspects of social support that predict complicated grief, PTSD, and depression. *OMEGA-Journal of Death and Dying, 61*(1), 1-24.
<https://doi.org/10.2190/om.61.1.a>
- Byeon, J. W., & Lee, H. C. (2016). Mediating effect of meaning reconstru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and complicated grief: focusing on suicide survivors. *The Korean Journal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26*, 162-176.
<http://www.riss.kr/link?id=A101897064>
- Chang, H. A. (2009). An empirical review of complicated grief.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28*(2), 303-317.
<http://www.riss.kr/link?id=A100631468>
- Chen, R. (2022). Social support as a protective factor against the effect of grief reactions on depression for bereaved single older adults. *Death Studies, 46*(3), 756-763.
<https://doi.org/10.1080/07481187.2020.1774943>
- Cho, M. S. (2012). *The effect of meaning making and centrality of event on pathological grief symptoms of bereaved famil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http://www.riss.kr/link?id=T12851397>
- Choi, H., & Cho, S. M. (2020).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complicated grief in bereaved parents of the sewol ferry disaster exposed to injustice following the los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66*(2), 163-170.
<https://doi.org/10.1177/0020764019894607>
- Diolaiuti, F., Marazziti, D., Beatino, M. F., Mucci, F., & Pozza, A. (2021). Impact and consequences of COVID-19 pandemic on complicated grief and persistent complex bereavement disorder. *Psychiatry Research, 300*, 1-5. <https://doi.org/10.1016/j.psychres.2021.113916>
- Fraley, R. C., & Bonanno, G. A. (2004). Attachment and loss: A test of three competing models on the association between attachment-related avoidance and adaptation to bereavemen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0*(7), 878-890.
<https://doi.org/10.1177/0146167204264289>
- Gang, J., Falzarano, F., She, W. J., Winoker, H., & Prigerson, H. G. (2022). Are deaths from COVID-19 associated with higher rates of prolonged grief disorder (PGD) than deaths from other causes?. *Death Studies, 46*(6) 1287-1296.
<https://doi.org/10.1080/07481187.2022.2039326>

- Glickman, K. (2021). Prolonged grief disorder in a diverse college student sample. *Frontiers in Psychology, 11*, 1-8.
<https://doi.org/10.3389/fpsyg.2020.604573>
- Han, D. H., Lee, J. J., Moon, D. S., Cha, M. J., Kim, M. A., Min, S., Yang, J. H., Lee, E. J., Yoo, S. K., & Chung, U. S. (2016). Korean version of Inventory of Complicated Grief Scale: Psychometric properties in Korean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31*(1), 114-119.
<https://doi.org/10.3346/jkms.2016.31.1.114>
- Han, H., Noh, J. W., Huh, H. J., Huh, S., Joo, J. Y., Hong, J. H., & Chae, J. H. (2017). Effects of mental health support on the grief of bereaved people caused by sewol ferry accident.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32*(7), 1173-1180.
<https://doi.org/10.3346/jkms.2017.32.7.1173>
- Han, H. S., Choi, W. J., Huh, S., Heo, H. J., & Chae, J. H. (2016). Understanding of complicated grief.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16*(3), 383-401.
<http://www.riss.kr/link?id=A102137667>
- Han, H., Yun, J. A., Huh, H. J., Huh, S., Hwang, J., Joo, J. Y., Yoon, Y. A., Shin, E. G., Choi, W. J., Lee, S., & Chae, J. H. (2019). Posttraumatic symptoms and change of complicated grief among bereaved families of the sewol ferry disaster: One year follow-up study.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34*(28), e194. <https://doi.org/10.3346/jkms.2019.34.e194>
- Heyvaert, M., Maes, B., & Onghena, P. (2013). Mixed methods research synthesis: definition, framework, and potential. *Quality & Quantity, 47*(2), 659-676.
<https://doi.org/10.1007/s11135-011-9538-6>
- Holland, J. M., & Neimeyer, R. A. (2011). Separation and traumatic distress in prolonged grief: The role of cause of death and relationship to the deceased.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33*(2), 254-263.
<https://doi.org/10.1007/s10862-010-9214-5>
- Hong, Q. N., Fàbregues, S., Bartlett, G., Boardman, F., Cargo, M., Dagenais, P., Gagnon, M.-P., Griffiths, F., Nicolau, B., & O’Cathain, A. (2018). The Mixed Methods Appraisal Tool (MMAT) version 2018 for information professionals and researchers. *Education for Information, 34*(4), 285-291.
<https://doi.org/10.3233/efi-180221>
- Huh, H. J., Huh, S., Lee, S. H., & Chae, J. H. (2017). Unresolved bereavement and other mental health problems in parents of the sewol ferry accident after 18 months. *Psychiatry Investigation, 14*(3), 231-239.
<https://doi.org/10.4306/pi.2017.14.3.231>
- Huh, H. J., Kim, K. H., Lee, H. K., & Chae, J. H. (2017). Attachment styles, grief responses, and the moderating role of coping strategies in parents bereaved by the sewol ferry accident. *European Journal of Psychotraumatology, 8*(6), 1424446.
<https://doi.org/10.1080/20008198.2018.1424446>
- Huh, H. J., Kim, K. H., Lee, H. K., & Chae, J. H. (2020). Attachment style, complicated grief and post-traumatic growth in traumatic loss: The role of intrusive and deliberate rumination. *Psychiatry Investigation, 17*(7),

- 636-644. <https://doi.org/10.30773/pi.2019.0291>
- Hwang, S. H. (2011). *The mediating effect of negative cognitions between prolonged grief symptoms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after bereave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http://www.riss.kr/link?id=T12469906>
- Jang, K. I., Shim, M., Lee, S. M., Huh, H. J., Huh, S., Joo, J. Y., Lee, S. H., & Chae, J. H. (2017). Increased beta power in the bereaved families of the sewol ferry disaster: A paradoxical compensatory phenomenon? A two-channel electroencephalography study.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 71(11), 759-768. <https://doi.org/10.1111/pcn.12546>
- Jung, H. S. (2015). *Development of the Korean Inventory of Complicated Grief: Preliminary investig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http://www.riss.kr/link?id=T13837206>
- Jung, H. S., Lee, J. Y., Kim, S. Y., & Yang, E. J. (2014). Concept mapping of the complicated grief experience of Korean adult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3(1), 81-107.
<http://www.riss.kr/link?id=A100631664>
- Jung, S. Y. (2017). *Social reaction to bereavement and meaning reconstruction for complicated grief*.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ttp://www.riss.kr/link?id=T14437721>
- Kang, H. S., & Lee, D. H. (2017). Korean version of the Prolonged Grief Disorder Scale (PG-13-K): A validation study.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9(4), 1027-1052.
<https://doi.org/10.23844/kjcp.2017.11.29.4.1027>
- Kim, E. J., Nam, H. S., Kim, H. B., Chung, U., Lee, S. H., & Chae, J. H. (2018). A retrospective and prospective follow-up study of psychological distress in the danwon high school survivors of the sewol ferry disaster. *Psychiatry Investigation*, 15(3), 261-265.
<https://doi.org/10.30773/pi.2017.06.25>
- Kim, H. J., & Song, H. I. (2020).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Inventory of Complicated Grief(K-ICG). *The Journal of Social Convergence Studies*, 4(4), 51-61.
<http://doi.org/10.37181/JSCS.2020.4.4.051>
- Kim, H. J., Song, H. W., Lee, Y. J., & Song, I. H. (2021). Factors affecting complicated grief of those who experienced bereavement.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41(3), 75-91.
<http://www.doi.org/10.15709/hswr.2021.41.3.75>
- Kim, K. H., & Lyu, J. Y. (2019). The effects of spousal bereavement and complicated grief on death anxiety among older adult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9(1), 21-35.
<https://doi.org/10.31888/JKGS.2019.39.1.21>
- Kim, S. H. (2016). *Coping flexibility and complicated grief among bereaved individuals*.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ttp://www.riss.kr/link?id=T14010665>
- Kim, S. H., & You, S. E. (2019). Are coping flexibility, forward focus coping, and trauma focus coping protective for complicated grief? *Cognitive Behavior Therapy in Korea*, 19(1), 37-58.
<https://doi.org/10.33703/cbtk.2019.19.1.37>
- Kim, S. M., & Kwon, S. H. (2018). Influential

- factors of complicated grief of bereaved spouses from cancer pati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8(1), 59-69.
<https://doi.org/10.4040/jkan.2018.48.1.59>
- Kim, S. Y., Lee, D. H., & Shin, J. Y. (2019). A latent profile analysis of prolonged grief symptoms among bereaved adul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4(2), 371-391.
<http://www.riss.kr/link?id=A106254368>
- Kim, S. Y., Park, J. E., Seo, H. J., Lee, Y. J., Son, H. J., Jang, B. H., Seo, H. S., & Shin, C. M. (2011). *NECA's guidance for undertaking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for intervention*.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https://www.neca.re.kr/lay1/bbs/S1T11C102/F/39/view.do?article_seq=5329&cpge=3&rows=10&condition=&keyword=&show=&cat=
- Kim, Y. S. (2021).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decentering of adults who experienced bereavement on prolonged grief symptoms by mediating meaning reconstruction: Focused on predicting bereavement.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12(1), 771-785. <http://doi.org/10.22143/HSS21.12.1.54>
- Komischke-Konnerup, K. B., Zachariae, R., Johannsen, M., Nielsen, L. D., & O'Connor, M. F. (2021). Co-occurrence of prolonged grief symptoms and symptoms of depression, anxiety, and posttraumatic stress in bereaved adult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Reports*, 4, 100140.
<https://doi.org/10.1016/j.jadr.2021.100140>
- Lee, D. H., Kim, S. H., & Shin, J. Y.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prolonged grief symptoms: the mediating effect of negative cognitions moderated by emotional dysregulation.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30(1), 143-172.
<http://doi.org/10.23844/kjcp.2018.02.30.1.143>
- Lee, E. J. (2020). *The effect of suicide-bereaved families complicated grief, recovery resilience, intentional rumination, and social support on their post-traumatic growt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http://www.riss.kr/link?id=T15520153>
- Lee, J. H., Choi, Y. S., & Park, Ki. Soo.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grief level and suicidal ideation of elderly living alone and the moderation effect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Agricultural Medicine and Community Health*, 43(1), 31-40.
<http://www.riss.kr/link?id=A105233501>
- Lim, S. J., Hwang, H. H., Kim, Si. H., & Lee, D. H. (2020). Relationship between insecure attachment and prolonged grief of adults who have bereaved: mediating effect of deliberate grief avoidance.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5(3), 467-484.
<http://www.riss.kr/link?id=A106878731>
- Lundorff, M., Holmgren, H., Zachariae, R., Farver-Vestergaard, I., & O'Connor, M. (2017). Prevalence of prolonged grief disorder in adult bereavement: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12, 138-149.
<https://doi.org/10.1016/j.jad.2017.01.030>
- Mason, T. M., Tofthagen, C. S., & Buck, H. G. (2020). Complicated grief: risk factors,

- protective factors, and interventions. *Journal of social work in end-of-life & palliative care*, 16(2), 151-174.
<https://doi.org/10.1080/15524256.2020.1745726>
- Mauro, C., Tumasian 3rd, R. A., Skritskaya, N., Gacheru, M., Zisook, S., Simon, N., Reynolds 3rd, C. F., & Shear, M. K. (2022). The efficacy of complicated grief therapy for DSM-5-TR prolonged grief disorder. *World Psychiatry*, 21(2), 318.
<https://doi.org/10.1002/wps.20991>
- Milman, E., Neimeyer, R. A., Fitzpatrick, M., MacKinnon, C. J., Muis, K. R., & Cohen, S. R. (2019). Prolonged grief and the disruption of meaning: Establishing a mediation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66(6), 714-725.
<https://doi.org/10.1037/cou0000370>
- Nam, I. (2015a). Effects of psychoeducation on helpful support for complicated grief: a preliminary randomized controlled single-blind study. *Psychological Medicine*, 46(1), 189-195.
<https://doi.org/10.1017/s0033291715001658>
- Nam, I. (2015b). Predictors of complicated grief among Korean older people,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35(1), 35-50.
<http://www.riss.kr/link?id=A100537504>
- Nam, I. (2016a). Suicide bereavement and complicated grief: experiential avoidance as a mediating mechanism. *Journal of Loss and Trauma*, 21(4), 325-334.
<https://doi.org/10.1080/15325024.2015.1067099>
- Nam, I. (2016b). Complicated grief treatment for older adults: The critical role of a supportive person. *Psychiatry Research*, 244, 97-102.
<https://doi.org/10.1016/j.psychres.2016.07.044>
- Nam, I. (2017). Restoration-focused coping reduces complicated grief among older adults: A randomized controlled study. *The European Journal of Psychiatry*, 31(3), 93-98.
<https://doi.org/10.1016/j.ejpsy.2017.07.002>
- Nam, I. (2018). Effect of a brief family-based treatment on complicated grief in bereaved older adults. *Annals of Geriatric Medicine and Research*, 22(2), 94-97.
<https://doi.org/10.4235/agmr.2018.22.2.94>
- Nam, I. S., Yoon, H. W., & Kim, T. W. (2020). Effects of a problem drinking monitoring program for bereaved older men: A pilot stud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40(3), 477-483.
<https://doi.org/10.31888/JKGS.2020.40.3.477>
- Nielsen, M. K., Neergaard, M. A., Jensen, A. B., Vedsted, P., Bro, F., & Guldin, M. B. (2017). Predictors of complicated grief and depression in bereaved caregivers: a nationwide prospective cohort study. *Journal of Pain and Symptom Management*, 53(3), 540-550.
<https://doi.org/10.1016/j.jpainsymman.2016.09.013>
- Prigerson, H. G., Horowitz, M. J., Jacobs, S. C., Parkes, C. M., Aslan, M., Goodkin, K., Raphael, B., Marwit, S. J., Wortman, C., & Neimeyer, R. A. (2009). Prolonged grief disorder: Psychometric validation of criteria proposed for DSM-V and ICD-11. *PLOS Medicine*, 6(8), e1000121.
<https://doi.org/10.1371/journal.pmed.1000121>
- Prigerson, H. G., Kakarala, S., Gang, J., & Maciejewski, P. K. (2021). History and status of prolonged grief disorder as a psychiatric

- diagnosis.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17, 109-126.
<https://doi.org/10.1146/annurev-clinpsy-081219-093600>
- Prigerson, H. G., Maciejewski, P. K., Reynolds III, C. F., Bierhals, A. J., Newsom, J. T., Fasiczka, A., Frank, E., Doman, J., & Miller, M. (1995). Inventory of complicated grief: a scale to measure maladaptive symptoms of loss. *Psychiatry Research*, 59(1-2), 65-79.
[https://doi.org/10.1016/0165-1781\(95\)02757-2](https://doi.org/10.1016/0165-1781(95)02757-2)
- Prigerson, H. G., Shear, M. K., Jacobs, S. C., Reynolds, C. F., Maciejewski, P. K., Davidson, J. R., Rosenheck, R., Pilkonis, P. A., Wortman, C. B., & Williams, J. B. (1999). Consensus criteria for traumatic grief: A preliminary empirical test.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74(1), 67-73.
<https://doi.org/10.1192/bjp.174.1.67>
- Prigerson, H. O., & Jacobs, S. C. (2001). Traumatic grief as a distinct disorder: A rationale, consensus criteria, and a preliminary empirical test. In M. S. Stroebe, R. O. Hansson, W. Stroebe, & H. Schut (Eds.), *Handbook of bereavement research: Consequences, coping, and care* (pp. 613-645).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ttps://doi.org/10.1037/10436-026>
- Rando, T. A. (2013). Complicated grief: scientific foundations for health care professionals. In M. Stroebe, H. Schut, & J. van den Bout (Eds.), *On Achieving Clarity Regarding Complicated Grief: Lessons from Clinical Practice*. (pp. 40-55). Routledge, New York.
<https://doi.org/10.4324/9780203105115-12>
- Sekowski, M., & Prigerson, H. G. (2022). Disorganized attachment and prolonged grief.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78(9), 1806-1823.
<https://doi.org/10.1002/jclp.23325>
- Shear, K., & Shair, H. (2005). Attachment, loss, and complicated grief. *Developmental Psychobiology: The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Developmental Psychobiology*, 47(3), 253-267. <https://doi.org/10.1002/dev.20091>
- Shear, M. K. (2015). Complicated Grief Treatment (CGT) for prolonged grief disorder. In U. Schnyder & M. Cloitre (Eds.), *Evidence Based Treatments for Trauma-related Psychological Disorders* (pp. 299-314). Springer.
https://doi.org/10.1007/978-3-319-07109-1_15
- Shear, M. K., Simon, N., Wall, M., Zisook, S., Neimeyer, R., Duan, N., Reynolds, C., Lebowitz, B., Sung, S., Ghesquiere, A., Gorscak, B., Clayton, P., Ito, M., Nakajima, S., Konishi, T., Melhem, N., Meert, K., Schiff, M., O'Connor, M. F., Keshaviah, A. (2011). Complicated grief and related bereavement issues for DSM-5. *Depress Anxiety*, 28(2), 103-117.
<https://doi.org/10.1002/da.20780>
- Shin, J. Y., & Lee, D. H. (2018). The mediating role of emotion dysregulation on prolonged grief symptoms and problematic drinking according to cause of death of the deceased.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3(4), 1059-1050.
<http://www.riss.kr/link?id=A105962844>
- Shin, J. Y., Kim, H. S., & Lee, D. H. (2019).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prolonged grief symptoms by

- expectedness of death: mediating effects of post-traumatic negative cognitions, intrusive rumination and deliberate rumination,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31(1), 185-215.
<https://doi.org/10.23844/kjcp.2019.02.31.1.185>
- Smid, G. E., Kleber, R. J., de la Rie, S. M., Bos, J. B., Gersons, B. P., & Boelen, P. A. (2015). Brief eclectic psychotherapy for traumatic grief (BEP-TG): Toward integrated treatment of symptoms related to traumatic loss. *European Journal of Psychotraumatology*, 6(1), 27324. <https://doi.org/10.3402/ejpt.v6.27324>
- Song, S. J., & Kang, Y. S. (2017). Development and effects of TF-CBT based group therapy on adolescents with relationship los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9(2), 357-382.
<http://doi.org/10.23844/kjcp.2017.05.29.2.357>
- Stroebe, M., Schut, H. (1999). The dual process model of coping with bereavement: Rationale and description. *Death Studies*, 23(3), 197-224.
<https://doi.org/10.1080/074811899201046>
- Stroebe, M., Hansson, R., Stroebe, W., & Schut, H. (2001). *Handbook of Bereavement Research: Consequences, Coping, and Car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ttps://doi.org/10.1037/10436-000>
- Stroebe, M., Schut, H., & Boerner, K. (2010). Continuing bonds in adaptation to bereavement: Toward theoretical integrat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30(2), 259-268.
<https://doi.org/10.1016/j.cpr.2009.11.007>
- Tur, C., Campos, D., Suso-Ribera, C., Kazlauskas, E., Castilla, D., Zaragoza, I., Garcia-Palacios, A., & Quero, S. (2022). An Internet-delivered Cognitive-Behavioral Therapy (iCBT) for Prolonged Grief Disorder (PGD) in adults: A multiple-baseline single-case experimental design study. *Internet Interventions*, 29, 1-11.
<https://doi.org/10.1016/j.invent.2022.100558>
- Yun, J. A., Huh, H. J., Han, H. S., Huh, S., & Chae, J. H. (2018). Bereaved families are still embittered after the sewol ferry accident in Korea: A follow-up study 18 and 30 months after the disaster. *Comprehensive Psychiatry*, 82, 61-67.
<https://doi.org/10.1016/j.comppsy.2017.12.007>
- Weber Falk, M., Alvariza, A., Kreicbergs, U., & Sveen, J. (2022). The grief and communication family support intervention: intervention fidelity, participant experiences, and potential outcomes. *Death Studies*, 46(1), 233-244.
<https://doi.org/10.1080/07481187.2020.1728429>

1차원고접수 : 2022. 04. 23.

2차원고접수 : 2022. 08. 01.

최종게재결정 : 2022. 08. 31.

A Systematic Review of Studies about Complicated Grief in South Korea from 2010 to 2020

Sung Yi Cha

Shin Young Park

Myoung-Ho Hyun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review the literature on Complicated Grief(CG) in South Korea for 10 years from 2010 and summarized the significant results. 33 papers out of 188 studies were selected through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As a result, the majority of the studies conducted after 2015, and most were classified as quantitative studies. When looking 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19 studies considered the elapsed period after bereavement, 28 studies identified the subject of bereavement. Inventory of Complicated Grief(ICG) and Prolonged Grief Disorder-13(PG-13) were most popular measures for CG but the use of validated measurement were limited. Factors related to CG were included attachment type, intrusive rumination,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Protected factors affecting the coping process of bereavement were future-oriented coping style, coping flexibility, and meaning-making process. Additionally, we summarise the results of the study on traumatic loss and the studies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psychological intervention program on the recovery of CG. Lastly, we discussed the limitations of the literatures and the potential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is the first study to systematically examine studies conducted on CG in South Korea.

Keywords: Complicated Grief, Studies in South Korea, Systematic Review